

사진 : 崔仁基 副知事

클로즈·업

忠清南道 副知事 崔仁基씨

◎... 충청남도 부지사(기협 충남지부장) 崔仁基씨 -.

66년도 제 4회 행정고시의 수석 합격자답게 수재형의 외모에서는 叡와 智가 넘쳐 흐른다.

더구나 京畿高·서울法大로 이어지는 그의 학벌은 속칭 K·S 마크로 판록이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

과거 내무부에서 행정관료로서 기반을 닦은 그의 행정 수완은 감히 누구도 따를 수가 없는 실력파로도 정평이 나있다.

◎... 기자가 副知事室문을 노크한것은 지난 5월 중순경이었다.

신임 사무국장답게 정열이 넘치는 金致洙씨, 언제나 차분한 金春奉 사업과



對談光景 (사진 右로부터 崔부지사,
 鄭실장, 金국장, 姜보건과장)

장과 함께 그의 방을 찾았다.

—— 젊으신 副知事님으로서 어떤 일이던지 빈틈이 없으시고 컴퓨터와 같이 정확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시고 道政을 이끌어 나가시는지요?

『忠南은 전국의 中心圈에 속해 있고 三南을 연결하는 내륙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중심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장부는 大田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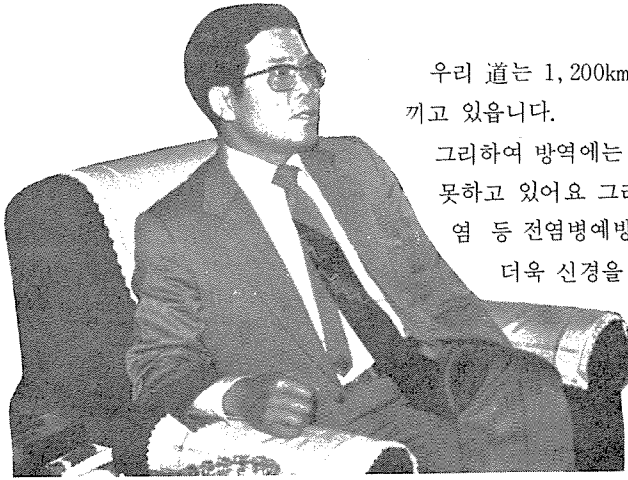
자고로 충남은 충신 열사가 많이 나신 고장으로도 유명하지요. 이순신장군의 아산 현충사라던가 윤봉길의사, 유관순열사, 이범석장군, 이동녕장군 秋史 김정희선생등이 모두 이고장에서 배출된 분들로서 충절의 고장, 전통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역시 백제 문화권에 속해 있어 전통문화의 중심지이고 역사성이 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道政의 밑바탕이 되는 철학도 전통과 충절의 고장답게 대한민국의 中心地며 행정의 重節道로서의 충남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모든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 충남도 保社行政의 특색이나 자랑 거리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사업의 수범이 되어야겠고 보사행정이나 기생충사업도 수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忠南道政을 말하는 崔부지사

우리 道는 1,200km 라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역에는 큰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콜레라 뇌염 등 전염병예방에도 타 시도보다 더욱 신경을 많이 써서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는 처지입니다.

—— 忠南의 비전염성 만성질환관리와 기생충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현대병인 비전염성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健協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병의 발생 양상을 시대적으로 보면 전염성 세균질환에서부터 바이러스성 질환, 순환기계질환, 그리고 비전염성 만성질환으로 발생양상이 변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 심장병 암등은 현대인에게 고질적인 병마가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道는 도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도록 계몽 유도하며 健協 충남지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의 活性化를 기할 예정입니다.』

崔副知事は 지부의 기능을 보강하여 금년 7월 1일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검사장비를 확보하여 집단검진사업을 벌이겠노라고 포부가 대단하다.

우선 당뇨병, 자궁암등은 5월부터 여성단체와 산업장을 순회, 검진을 실시하고 고혈압검사등은 7월부터 실시 예정으로 있다면서 道政口號와 같이 「활기찬 忠南」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

기생충검사 사업은 벌써 본래도에 올라 83년도 목표량도 2백 7만 5천명으로 잡아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하는 崔副知事は 忠南의 감염율은 住民이 12.2%, 학생 9.3%로서 타도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자랑한다.

기타, 디스토마 감염조사라던가, 토양채소검사, 보건계몽사업을 해서 종합적인 기생충사업을 하고 있었다.

충남지부도 도정구호 「활기찬 새忠南」과 더불어 충남지부 구호도 새로 정해 새로운 무드 조성에 힘쓰고 있었다. 이름하여 「친절 배가운동의 해」다.

金致洙국장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는 국민보건을 위한 서-비스 기관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여 건강 체크를 하는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同席한 姜允植보건과장은 道에서는 가장 '베테랑級'의 보사행정가—

園藝에 깊은 조예가 있고 모든 행사의 式辭를 執筆하는데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金국장이 귀뜸을 한다.

姜과장은 또한 他市道에 있는 건강검진 차량을 충남도 최 단시일내에 확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金국장에게 강조하기도—

◎... 崔仁基副知事は 내무부 자연보호 새마을 담당관, 全北道副知事등 요 직을 거쳐 現忠南副知事に 취임했다.

76년도엔 미국 존스 호킨스대학 보건대학원도 수료했다.

취미로는 바둑이 아마추어 초단으로 보통이상의 실력자, 운동은 정구를 즐기고 있다.

부인 黃美子여사와의 사이에 4남매의 다복한 家長.

기생충예방 강조주간 기념화보



인천지부



경남지부